

구례 공동주택 지원 사업 20세대→10세대 이상 ↓

구례군의회, 사업 대상 확대 새해예산안 의결…20억 삭감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5~18일 운영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24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구례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3487억원 중 11개 사업, 24억 8100만원을 삭감하고 4개 사업 4억 8651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건, 20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주요 조례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 보훈 대상자 예우가 강화됐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처리해 공동주택의 주거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례군 건축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이상 점포에서 20개 이상으로 하향했다.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의결돼 소규모 가설 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유시문 의장은 “군민들이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 회의는 구례군의회 누리집 영상회의록에서 실시간 및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동절기 공중화장실 안전점검 여수시, 31일까지 159개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31일까지 겨울철을 맞아 관내 공중화장실 159개소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공중화장실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감염병 예방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방역실태 점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및 시설안전 점검 △위생·청결·편의용품 비치 등이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해 여수경찰과 시민평가단이 함께 열화상복합탐지기를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문화유산 보물승격 학술대회 고흥군,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

고흥군은 최근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도와 고흥군이 주최하고 지역유산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됐다.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은 1972년 이은상 선생이 고흥 고령신씨 문중을 방문해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고문서라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1990년 전남도 유형문화재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자’로 지정됐다가 지난 11월9일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현재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 기탁 보관 중이다.

학술대회는 모두 4개의 주제로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 가치와 의의’, 정형숙(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교수)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의 서체 검토’, 제장명(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정유재란기 조선수군과 의병장 신군안의 활동’, 나선하(목포대학교 강사) ‘흥양 의병장 신군안의 가계와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주제별 발표에 따른 토론은 좌장으로 김희태(전남도 문화재위원), 토론으로 김건우(전주대학교 교수), 안동교((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신원호(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이수경(지역유산연구원)이 나섰다.

이날 이순신이 흥양 출신 신군안에게 내린 의병장 차첩은 국내 유일한 것이며, 결재자 이순신의 수결 ‘일심(一心)’이 있는 문서라는 점, 관인 ‘봉사지인(奉使之印)’으로 발급자가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점, ‘조선왕조실록’과 ‘난중일기’ 등에 없는 새로운 사료라는 점, 명량해전 이후 전라도 연해안의 지역민의 의병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치가 있음이 공론화됐다.

양가람 기자

‘광양 백운산 눈꽃 등반’ 인기 설국·상고대 등 8개 코스

주말동안 내린 눈으로 환상적인 설경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눈꽃 등반이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겨울철 백운산은 설국과 눈꽃이 절경을 이뤄 매혹적이다.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처럼 피어나는 상고대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국 26개 백운산 중 경관이 뛰어난 6대 명산에 꼽히는 광양 백운산에는 총 8개의 등산코스가 개설돼 있다.

많이 찾는 백운사~상백운암~정상 코스는 산행 시작 지점인 백운사가 해발 800m에 있어 왕복 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다.

진틀에서 오르는 2코스도 인기가 많다. 2코스는 진틀~병암계곡~진틀삼거리~신선대~정상~약수~진틀삼거리~병암계곡~진틀마을을 원점회귀 코스로, 소요 시간은 4시간이다.

제5코스 도솔봉과 한재 사이 파리봉의 눈꽃과 설경은 마니아들을 재촉케 한다.

광양시는 백운산 겨울을 만끽한 뒤 숲 불에 광양불고기와 광양닭숯불구이 등을 구워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할 것을 추천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특수상용 수소 충전소 오픈 여수미래혁신지구

전남 최초 특수 상용 수소 충전소인 ‘여수 주삼 코하이젠 수소충전소’가 여수미래혁신지구에서 문을 열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주삼 코하이젠 수소충전소’는 민간사업자인 ㈜코하이젠이 지난 2021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버스과 승용차 모두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로 구축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이며 충전 설비용량이 300kg/hr 규모로 시간당 최대 수소 버스 15대(20kg), 승용차 60대(5kg)를 충전할 수 있다.

특수 상용 수소 충전소 구축으로 여수시 내 운영되는 수소충전소는 1호 ‘하이넷 SPG 여수 수소충전소, 2호 ‘하이넷 여수 둔덕 수소충전소’ 등 총 3곳으로 확대됐다.

여수시는 수소충전소 증설이 수소차 보급 확대 시책과 수소차 이용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는 현재까지 수소 승용차를 500여 대 보급했으며 내년에는 수소 승용차 150대, 수소 버스 15대를 더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수소충전소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주말동안 내린 눈으로 환상적인 설경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눈꽃 등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시 제공

순천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로컬푸드 먹거리 선순환 구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먹거리 보장 위원회 등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완주, 군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민가공센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성공적인 지역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지역 먹거리 계획(Food Plan)’은 로컬푸드(Local Food)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생산 시스템 구축 △소비처 확대 △건강 먹거리 보장 △민관 협치 등 4개 분야 60여 개 사업을 과제로 지역



순천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먹거리 보장 위원회 등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먹거리 계획을 수립했다.

또 먹거리 관련 위원회 및 부서 협업체를 구성하고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광양시는 2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전세피해 입자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

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 피해에 대한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